

“과장님, 에이즈 걸린 사람 기초생활수급 신청 어떻게 하죠”

김현진 · 감염인가명

얼마 전 에이즈 감염인의 넋두리에 같은 감염인으로서 황당하고 분노를 금할 수 없는 경험을 한일이 있었다. 아마 그 사람도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러한 일을 경험했을 것이다. 그 감염인은 동사무소라는 곳에서 많은 이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에이즈라는 질환을 얻어 질병의 진행으로 어쩔 수 없이 기초생활수급절차를 밟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들러 상담을 하는 도중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서류와 자격 미달로 인하여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다.

그러나 다행히 이러저러한 의논 끝에 한 가지 해결책을 발견하게 되었다. 해결책은 부모 형제와 여러 해 동안 연락이 두절되어 현재 전혀 연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주위사람의 서명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것도 20여 명 정도.

천신만고 끝에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동사무소를 방문하였다. 그러나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서류를 내밀자 직원은 잘 모르겠다는 듯이 저만큼 멀리 떨어진 상사에게 소리 높여 도움을 청하였다.

“과장님! 에이즈 걸린 사람 기초 생활수급 신청 어떻게 하는 거죠?”

그렇게 그곳에서 그 감염인은 세인들의 주인공이 되었다. **기초생활수급신청에 20명의 서명 필요**

모르면 의논하고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에이즈 감염인에게 그렇게 과분한 선물을 선사해야 했을까? 과연 본인의 일이었다면 어땠을까? 이러한 경우 현재 에이즈에 관한 인식의 부족과 교육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단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왜 꼭 에이즈에 관한 사항만은 그렇게 모르는 것이 많을까? 에이즈 감염인의 기초생활 자격에 관한 법령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그 법령속지의 미숙에서 오는 실수라고 해야 할 것이다. 에이즈를 관리하는 보건소 등 관공서에서 충분한 정보의 전달이 필요할 것이다.

에이즈가 창궐한 20여 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에이즈라는 질병이 사회에서 보통의 질환처럼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에이즈 감염인들에게 보건소 에이즈 담당자와 동사무소 사회복지사와의 관계는 무시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될 것이다. 에이즈에 대하여 조금만 더 이해와 포용의 울타리를 두를 수만 있다면 이러한 물적각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동사무소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러 갔을 때 많은 감염인들은 회한과 자괴감에 빠지게 된다고 한다. ‘왜 젊은 나

같은 감염인으로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 관공서를 다니며 제2, 제3의 신분 노출의 우려와 불편함을 느끼기보다는 보건소 직원들과의 정보교류를 통하여 보다 일관성 있고 간편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인데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려 하십니까? 라는 질문은 정당히 물어야 할 절차 일 것이다. 그러나 에이즈라는 병명이 표기된 진단서나 보건소의 확인서가 첨부 되었을 때는 얼굴 한번 쳐다보지 않고 “다 됐어요! 십여 일 후에 의료보호증 받으러 오세요.”

그렇게 차가운 반응에 많은 감염인들은 눈물을 머금고 동사무소의 문을 닫고 나왔다. 감염인들의 몸과 마음을 함들고 지치게 만드는 곳은 이것뿐이 아니다.

민방위훈련 면제신청에서도 신분노출 우려

얼마 전 동료감염인 또한 민방위 훈련을 면제받기 위하여 관공서에 방문했을 때도 보건소나 병원의 진료확인서 등을 또다시 첨부해야 했고 여러 담당자들을 찾아다니는 복잡한 절차와 번거로움, 직원의 무지에 피해를 입었다.

대한민국 남자로서 민방위 훈련이나 예비군훈련을 면제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 가당치 않은 것인가? 민방위훈련의 경우 치료제 부작용과 건강의 쇠약으로 인해 이른 새벽 약 기운에 눈을 부비며 휘청거리는 몸으로 훈련소로 향하는 것은 형식에 의존한 걸치레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오죽하면 면제신청을 원해야 했는지를 말이다.

이러한 행정절차상의 문제는 감염인 본인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건소 담당자와 연계하여 처리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민방위담당자나 예비군 담당자의 아래위로 다시금 확



인하는 뜨거운 눈빛을 우묵으로 당해내지 않아도 될 것이다.

같은 감염인으로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 관공서를 다니며 제2, 제3의 신분 노출의 우려와 불편함을 느끼기보다는 보건소 직원들과의 정보교류를 통하여 보다 일관성 있고 간편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